# "기초부터 새로 다지자"

## 불미협 31일 백상갤러리서 '불교미술전' '학술대회' 개최

### 회화·조각등 다양한 작품들 전시

### 인식·교육개선 현대화 과제 모색

한국불교미술협회(회장 문명대교수)가 부처님 오신 날과 동국대 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 개설 기념으로 마련한 제6회 불교미술전과 제1회 학술대회가 31일 오후5시 인사동 백상갤러리에서 문을 연다.

전시에는 회화, 조각분야등 회원들의 신작들이 선보이며 학술대회는 '현대 불교미술의 진로'를 주제로 열린다. 현대 불교미술의 진단과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되는 이 학술대회에서는 문명대교수(동국대)가 '현대 불교미술의 진로'를 주제로 발제논문을 발표한다. 이어 윤범모교수(경원대)가 '현대미술과 불교미술의 상관관계'를 김창균씨(문화재전문위원)가 '현대불화의 기법'을 각각 발표한다. 이들 발표에 대한 논평에는 보광스님, 법산스님, 오원배교수(동국대), 임영주씨(공예미술관장)등이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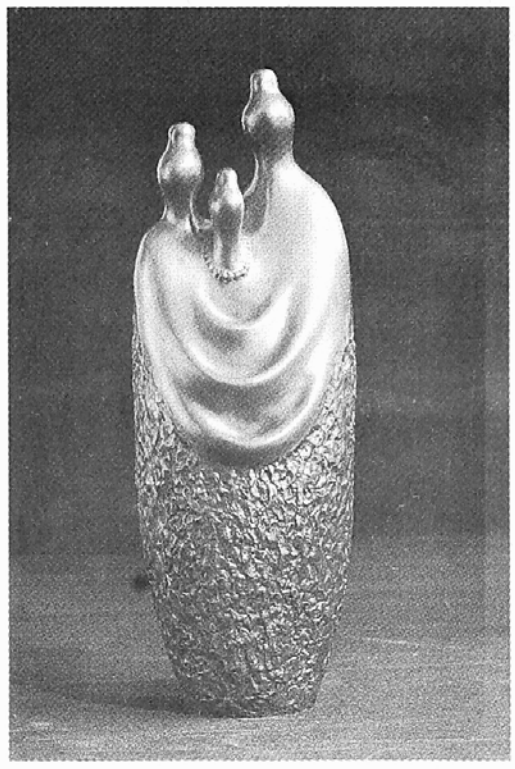
미리 발표된 자료를 통해 문명대교수는 현대에 알맞는 불교미술상의 원칙을 △미의식의 반영 △불교도상경전에 입각한 작품 창조 △전통적인 미와 현대적인 미의 조화 △종교미술로서의 격조 함양 △주변환경과의 조화등으로 꼽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현대 불교미술의 진로에 대해 문교수는 "불사의 기본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방향이란 교리나 도상경전에 입각한 전형성의 존중이라는게 문교수의 주장이다.

또한 문교수는 교육제도의 개선과 작가의 체질개선도 현대 불교미술의 바른 자리매김의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윤범모교수도 현대불교미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단의 의식개선과 교육제도의 일대혁신, 전통위주의 수구파와 창작중심의 현대작가의 융합, 전공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등이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교수는 무엇보다 작가와 수용자 모두가 불교미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통의 숙지를 바탕으로 한 현대미술 사조의 동시적 호흡등이 이뤄지지 않는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즉 시대의식과 국제적 감각까지 완벽히 갖춘 불교미술계의 풍토 조성이 이뤄질 때 오늘날을 대표하는 예술품도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윤교수의 주장이다.

임연태 기자



◇31일부터 열리는 불미협 회원 작품전에 출품된 박병희씨의 조각작품 「카르마-가족」.

## 불심시심 〈20〉

### 산 속의 넉넉함

山色暎人衣 (산색영인의) — 옷에 스며 비치는 산빛
秋光送夕輝 (추광송석휘) — 저녁노을 보내는 가을볕
風淸松自響 (풍청송자향) — 바람 맑아 절로 이는 소나무 울림
霜落雁初飛 (상락안초비) — 서리 내리자 날기 시작한 기러기
錦繡堆楓岸 (금수퇴풍안) — 단풍 언덕에 싸인 금수의 비단
烟霞富翠微 (연하부취미) — 노을은 짙어 이 푸르름의 부자
徘徊吟獨賞 (배회음독상) — 오락가락 읊조리는 외로운 감상
日暮掩柴扉 (일모엄시비) — 해 저물어 사립문도 잠가버렸다

이 시도 부휴대사의 산거잡영(山居雜詠) 중의 한 수이다. 산사의 정적과 산승의 정려가 그저 여실히 나타나 있다. 온 산의 빛이 발을 뚫고 들어와 선정에 든 스님 옷자락까지 퍼렇다. 거기에다 서산에 기운 햇살이 가을볕을 자랑한다. 어딘지 모르게 따사로움을 느끼게 한다.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솔바람이 쏴하는 느낌이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소리(天籟)이다. 산 너머에서 다가오는 기러기 소리가 있다. 그런가 하면 뜰가에는 벌써 서리가 맺혀 있다.

부자요, 넉넉함이란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다. 마음이 여유로우면 삼라의 모든 것이 부자마저 부럽지 않다. 골내 깔린 노을 아지랑이, 거기에 짙푸른 이 진여의 실상, 나로서는 부자이다. 이것이 바로 시인의 시어로만이 표현될 수 있는 진리의 언어이다.

이 배경 속에 홀로 배회하며 읊조리는 선사이자 시인의 한가로움이다.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이끌어 들이고 있는 것이다. 유형으로 닫히는 사립문을 무형으로 감싸 안는 마음의 문이 따로 또 있다. 앞 시에서 보았듯이 한 잔의 차와 한 권의 경전이 또 다른 세계로 선사를 맞이할 것이다. 묵직히 가라앉은 외계의 자연과 차분이 진정된 내계의 이 마음은 서로 내외의 공간을 뛰어 넘은 그야말로 우주의 선정이자 스님의 선정이다.

이렇듯 큰 스님들의 시는 자연을 읊되 자연의 진실 그대로이면서 그것이 바로 스님들이 추구하는 진여의 세계이고 참선의 세계이며, 이 시를 감상하는 대중에게도 시 자체의 아름다움을 주면서 동시에 진여세계의 여여한 법리를 일깨우는 희열을 느끼게 한다.

이종찬 〈동국대학교 교수〉

## 범조스님 음악활동 결산

### 찬불가CD·테잎 내놔

#### 禪수행 몰두위해 불음포교 중단 밝혀

◇범조스님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14년간 음악포교 현장에서 '법고 등등' 울리던 범조스님이 음악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82년 첫무대 이후 10회 이상의 개인발표회를 비롯 40여회의 공연을 가졌던 스님은 "앞으로는 선수행에 몰두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91년에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갖는등 미국과 일본에서도 수차례 무대를 열었었다.

스님은 14년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최근 CD와 테잎으로 찬불가집을 내놓았다.

'합장' '생명의 빛' '이루어 주소서'를 타이틀로 3장 1세트로 제작된 이 음반에는 스님의 대표곡과 길옥윤씨의 유작들이 함께 실려있다.

지난 3월 타계한 길씨의 작품은 '추모' '종소리' 등 17곡이다. 이중 '추모' 등 6곡은 92년 뉴욕 조계사에서 스님과 길씨가 함께 만든 곡이다.

## '인간내면' 새긴 화가의 조각전

### 박항률씨, 낙산갤러리

◇박항률작 「1994 Untitled」

화가란 그림만 그려야 한다는 기존의 통념을 깨고 조각을 선보인 화가 박항률씨의 조각전이 6월4일까지 동숭동 낙산갤러리에서 열린다.

철저하게 인간의 내면에 대한 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의 작품 30여점이 선보이고 있는 이번 전시회는 '명상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인물상의 표정을 빌어 표현하고 있다.

서울대 재학시절 직지사에서 만난 스님의 잘생긴 두상에 매료돼 그의 작품 전반에 형상화한 박씨는 의식하지 않은 불교의 정신세계와 인간원형의 향취를 이번 조각전에서 보여주고 있다.

### 불교조각 회원전

#### 31일부터 조형갤러리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회장 김익홍)의 네번재 불교조각 회원전이 31일부터 6월6일까지 관훈동 조형갤러리에서 열린다. (736-4804)

40여 회원들의 불교조각 작품이 전시되는 이번 회원전에는 불상, 수미단등이 선보인다.

### 서병옥씨 첫 개인전

#### 空사상 표현…도올갤러리

대흥사의 꽃담, 목어등 불교적 소재로 무념무상의 인생과 함께 공(空)사상을 통한 영구한 감각의 세계를 표현한 서병옥씨의 첫번째 개인전이 지난 24일부터 31일까지 인사동 도올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사찰의 담벼락 모퉁이에서 볼 수 있는 '꽃담'을 나무 그림자와 절묘한 구도를 이룬 작품과 무너져 내린 석탑, 그 주위로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는 기왓장들, 늦가을에 을씨년스럽게 변색되어 가는 풀잎, 폐사(廢寺)풍경 등을 세밀하게 묘사한 40여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서병옥」전은 서울 전시에 이어 6월16일부터 22일까지 광주 인재갤러리에서도 열린다.

### 아동문학상등 시상

#### 불교청소년문화진흥회

한국불교청소년문화진흥회(이사장 박동열)는 제13회 한국불교아동문학상과 제2회 불교아동문학신인상, 제4회 찬불가요가사현상공모에 대한 시상식을 지난 27일 오후3시 삼청동 칠보사에서 가졌다.

### 중앙문화센터 불화반 개설된다

중앙문화센터에 불화(佛畵)반이 신설됐다.

6월1일부터 8월20일까지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57기 여름강좌의 불화반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두시간씩 진행된다. 불화작가 홍승표씨가 기초실기와 이론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수강료는 8만원. (02)744-44.2.

## 한불회 합창단 4일 하와이 공연

### 대원사 20년 기념행사…몽고무용단과 협연

한불회합창단(회장 정옥란)이 하와이 샤미나드대 마미아극장에서 6월4일 오후 7시에 「찬불가 및 세계의 음악」 공연을 갖는다.

대원사창건 2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 공연은 몽고의 무용단과 함께 펼쳐진다. 몽고측 무용단은 몽고전통무용을 선보인다.

이강렬씨의 지휘와 문미선씨의 반주로 45명의 합창단원이 무대에 서게되며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등 찬불가와 가곡, 세계의 명곡등을 공연한다. 박철희, 김청자, 박신향씨의 솔로 공연도 함께 진행된다.

그동안 한불합창단은 하와이 대원사의 국제학술세미나를 지원해 왔다.

## 문화재 단신

### 제주법화사지 발굴조사 올內 매듭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 알려진 서귀포시 법화사지건물터 발굴조사가 올해안에 모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는 올해 사업비 1억원을 들여 하원동 소재 법화사지내 3천2백여평의 건물터에 대한 마무리 발굴사업을 펴기로 하고 지난달 22일 문화재관리국의 발굴조사승인을 얻어냈다. 시는 또한 3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존 발굴한 연지터 6필지 2천평을 추가로 매입키로 했다.

### 홍성 내원사에 불상·탱화등 소실

지난 8일 오전11시께 충남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오서산 중턱에 위치한 내원사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대웅전 6평과 탱화 3점, 불상 2점이 불에 탔다. 경찰은 이날 대웅전에 사람이 없었다는 사찰 관계자의 말에 따라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내원사는 백제 31대 의자왕 16년인 657년에 법명대사가 창건한 충남도지정 제69호 전통사찰이다.

### 신라때 도가니 발견 불상들 주조 가능성

삼국시대 구리등을 녹여 불상이나 동종을 주조했던 도가니(높이 29㎝, 지름 23㎝)가 경북 영주시 순흥면 순흥국교에 보관돼 있는 것이 뒤늦게 발견됐다.

영주향토사연구회장 최현교씨(61)는 "통일신라시대에 지역에서 제작됐던 각종 불상들이 흑연에 진흙을 발라 만든 이 도가니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 경남문화재대관 발간

#### 문화재·민속자료 담아

경남도는 최근 해인사대장경판 등 경남지역에 분포돼 있는 각종 중요문화재와 기념물을 화보와 함께 상세히 소개한 〈경남문화재대관〉을 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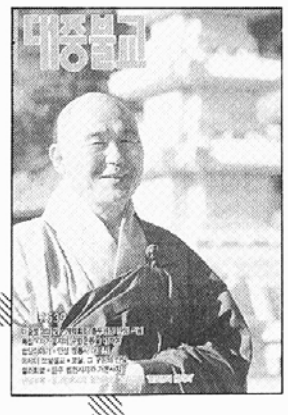
경남도가 지난 93년부터 2년간의 작업끝에 펴낸 이 책은 대관규모로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순으로 편집돼 있다. 도는 지난 2일 추가지정한 남명조식선생 생가지(生家址)등 28건의 도지정문화재를 비롯, 이번에 싣지 못한 문화재 기념물을 정리한 이책을 추가로 제작해 도민들의 내고장 문화재에 대한 사랑을 제고할 계획이다.


진리의 전화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
구룡사 부설 인생상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지혜의 문이 있습니다. 진리의 전화가 있습니다.
상담전화 (02) 579-3033

"월간 〈대중불교〉를 만나십시오"

수행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도반은 필요합니다.
〈대중불교〉가 함께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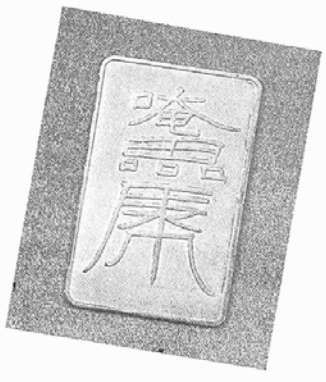
정법에 입각한 신행운동의
선도적 역할과 함께
불자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과 역할을 끊임없이
모색해온 불교정론지 〈대중불교〉가
이제 수행운동을 함께 펼쳐갑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과 보람으로
이끌어줄 대중불교!
지금 당장 전화로 신청하세요!



불교방송교재
'경전공부'
'교리강좌'
'불교영어 한마디'를
권말부록으로
발행합니다

구독문의 : 서울 용산구 후암동 358-17 (재)대원정사, 월간〈대중불교〉
전화 : (02)773-5731, 752-7047 / 팩스 (02)771-6796

액운을막고 행운을 주는
신비의 황금부적



무병장수 만사대길 符籙

• 순금 3.75g
• 순은 18.75g (순도 99.9%)
₩ 148,000

■ 장원합격부
각종 시험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는데 영험있는 부적
• 대입수능시험수험생
• 고입학력시험수험생
• 취직시험준비생
• 각종자격시험준비생

■ 사업득재운부
사업번창과 재운을 좋게 하는데 영험이 있는 부적
• 사업하시는 분
• 사업을 시작하실 분

■ 동련무사고부
차운전사고나 공장 안전사고 건설공사 사고 등 각종사고를 방지하는데 영험이 있는 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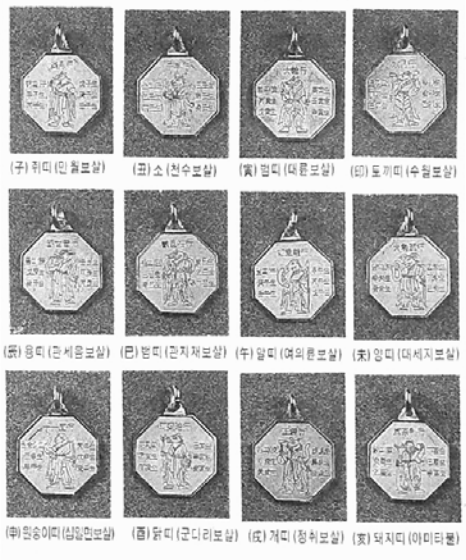
상담처 : 삼천불사 (02)735-5293

운명의 길을 열어주는
보살氣띠부적 메달

천운을 만나는 천지인의 인연 부적

앞(운명보살) 뒤(띠십이지상)

12년마다 되돌아오는 운명지수의 변동을 인연보살님의 천지인의 氣로 천운의 길로 돌려놓은 氣부적입니다.



(子)쥐띠(민월보살) (丑)소(천수보살) (寅)범띠(대륜보살) (卯)토끼띠(수월보살)
(辰)용띠(관세음보살) (巳)뱀띠(관자재보살) (午)말띠(여의륜보살) (未)양띠(대세지보살)
(申)원숭이띠(십일면보살) (酉)닭띠(준디리보살) (戌)개띠(정취보살) (亥)돼지띠(아미타불)

■ 순은(99.9%)18.75g (체인포함) ₩ 48,000

상담처 : 삼천불사 (02)735-5293